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재준	학번	
이메일	kimjaejunks@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Martin School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직무훈련 비학위 과정 (국가) 미국	
기간	2020. 1 ~ 12월	[귀국일:2020년 12월 23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0년 12 월 일
신청인 : 김 재 준 (인)

□ 기관소개

- 켄터키 대학 (University of Kentucky) : 1865년에 설립되어 미국 켄터키 주의 렉싱턴 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2019~2020년 기준으로 30,545명이며, 유학생은 1,545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5.1%정도가 됩니다. 6개 단과대학과 11개의 학과가 미국내 상위 10위권에 속해 있으며 경영, 의학, 약학, 농업학 등이 유명합니다.

- 대학원 (Martin School) : Martin School of Public and Administration은 켄터키 주립대학에서 공공정책 및 행정을 가르치는 대학원으로 1976년 제임스 W. 마틴 센터 (James W. Martin)에서 첫 수업을 시작해서 1984년에 James W. Martin 공공 행정학교로 명명되었으며, 1985년에 켄터키 대학에서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공 서비스, 연구 및 학문적인 활동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1994년 James W. Martin 공공 정책 및 행정 대학원으로 다시 개명되었습니다. 대학원의 최우선 교육 과정은 공공행정학 석사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로 75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켄터키 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등에서 다양한 직위 및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복지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등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0년 후반 공공 정책 석사 (Master of Public Policy) 과정을 개설하였고 졸업생들은 전국적으로 연구사, 분석가 및 박사과정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경제학 및 재정학 기반 교육과정으로 2020년 US News 기준 16위 행정대학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재정 및 예산 부분에서는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 학생은 현재 석사과정 11명, 박사과정 3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 IPPMI (International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Institute) : 2009년 Martin 대학원 내 국제 공공 정책 및 관리 연구원 IPPMI를 설립하여 1년 직무 훈련 비학위 과정, 2년 MPA 석사과정, 1년 KDI School EMPP 석사과정, 2년 직무연구과정, 특정과제 중심의 단기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정 정책 중심 교육 연구기관입니다. 한국, 타이완,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공무원 연수를 미국 연방정부와 켄터키 주정부와 상호협력을 통한 교육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봄학기 현재 IPPMI에는 MPA 과정 3명, EMPP 과정 7명, 비학위 과정 16명, 직무연구(Visiting Scholar) 과정 8명 등 34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 생활환경

켄터키 렉싱턴은 인구 30만 미국 중소도시로 도시의 편의시설과 천연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진 도시형 전원도시로 연중 강우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일 년 내내 푸른 잔디를 볼 수 있어 Bluegrass라고 불리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후는 한국과 비슷하게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름에는 32~33도 정도이나 습도가 높지 않아 쾌적한 편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많이 있어 산책을 하거나 도시락을 사서 소풍을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지 선택의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학군과 도서관 등 각종 편의시설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렉싱턴 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한 평가 점수 등 다양한 정보는 www.greatschools.org/kentucky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Beaumont Farm APT, Merrick Place Apartment, The Reserve at Merrick

Lakewood Park APT 등이 있으며 임대료는 \$655 ~ \$1,300 정도로 타 대도시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매년 임대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기숙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www.uky.edu/housing/graduate-family-housing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정착 도우미 서비스는 Martin School에서 미국 생활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로 미국에 오기 전 학업을 마치고 떠나는 분들과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자동차, 가구 등 직거래를 알선하고 렉싱턴 정착에 필요한 자녀학교, 은행, 전기 및 수도 등 공공기관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자녀 학교 입학

이 곳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영문 예방접종확인서, 영문성적표(중학생이상), 결핵검사는 미국에서만 가능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고 검사결과는 당일 나오며 \$65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문 예방접종표는 가까운 클리닉에서 의사가 검토 후 켄터키 양식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20정도를 지불하여야 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 예방 접종을 해야 됩니다. 신체검사서는 학교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고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포함 현지 주소 증명서 2종류와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 학교등록 절차 (해당 주소지의 관할 교육청)

- 1) Fayette County Public School (렉싱턴 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 2) 등록 번호를 발급 받은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 방문
- 3) 방문시 지참서류 : 부모 여권 및 해당 자녀 여권, 현주소 증명서류, 켄터키 양식 예방 접종표
- 4)등교 : 초등학교는 자체 영어실력 테스트 후 당일 혹은 다음 날 등교가능하고 중고등학교는 등록 후 교육청에서 영어 실력 테스트 2시간 정도합니다.

□ 차량구입, 운전면허증 취득 및 대중교통

1) 차량구입은 유학생의 차를 인수하거나 딜러 샵에서 구입을 하는데 미리 웹사이트 (www.kbb.com) 등에서 검색하고 흥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판매를 하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딜러에게 판매를 하실 때는 견적을 여러 곳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Secretary of state에서 하게되며, 필요한 서류는 Title(차량등록 및 양도서류), 보험가입증명, 거주지 증명(집렌트 계약서), 여권입니다.

2) 운전면허 취득은 Social Security Number 없는 경우는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없다는 확인서, 여권, DS2019, 주소지 증명서류 우편물이 필요하며 등록비 \$30과 필기 합격 후

실기 비용은 없습니다. 운전면허 필기는 각종 법령과 운전요령, 표지판 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80점(40문제중 32문제)을 넘어야 하며, 한국어시험 문제지도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등록증(Title), 국제 운전면허증, 자동이체 은행계좌가 필요하며 보장 내용에 따라 다르나 \$700~\$1,300 (6개월) 정도이며 사람마다 처음 견적 시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니 처음에 견적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1년을 가입하세요. 6개월 후 미국 면허증 취득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마다 차량 긴급출동서비스 되는지 보장범위를 확인하시고 만약 안되면 따로 AAA 긴급 출동 서비스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4) 핸드폰은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유심 칩만 바꾸는 경우가 많고 유학생은 미국 내 전화번호가 꼭 필요하며 Mint 모바일이나 Cricket를 묶어서 가입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선불 유심 칩을 미리 사가지고 오면 국제 전화와 데이터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은 UK 대학생은 무료이며, 일반인은 \$1.5로 배차 간격이 길고, 이용객은 주로 UK 학부 학생이 많다.

□ COVID-19 상황

1)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켄터키 코로나 일일 확진자는 11월 27일 4,603명을 최고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12월 13일 현재 224천명이 확진되었으며 사망자는 2,446명이다. 코로나 초기 주지사의 발 빠른 대응으로 처음에는 다른 주에 비해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았으나 여름 휴가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렉싱턴의 Fayette County는 12월 13일 현재 일일 확진자가 265명이고 총 20,536명이다.

2) 학생들의 학교 수업은 County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대면과 비 대면으로 결정되고 있다. 렉싱턴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 중이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Fayette 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수업은 주로 Zoom으로 진행 중이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수업 중 숙제를 내고 있어 수업 후 숙제하기에 바쁘다.

3) 방학 중에 여행은 각 주마다 제한사항이 있어 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야 되며 특히 뉴욕 주를 방문 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숙박시설에서 대면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청소 등은 요구 시만 해주고 아침이 포함되어 있어도 간단한 간식으로 제고하는 곳이 많다. 특히 관광지나 국립공원을 방문 시에는 미리 홈페이지에서 입장권을 구매해야만 입장할 수 있고 인기 있는 장소는 매진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켄터키 식당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의 증가로 식당 내 식사가 금지되었으며 픽업이나 배달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맥도날드, 서브웨이, 윈디스 등 패스트 푸드를 이용시 앱을 미리 깔아 사용하면 간편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